현대소설연구(제9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4.12.96.69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장애화* **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와 황석영 「장사의 꿈」을 중심으로

김 자 영***

요약

본고는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장애화를 조선작의 소설 「영자의 전성시대」와 황석영의 소설 「장사의 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두 작품에서는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1970년대 사회를 소설의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영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홀로 상경한다. 젊은 여성의 몸은 권력의 힘에 의해 유린당하고 겁탈당한다. 자신의 성 주체성을 박탈당한 '영자'는 결국 불구가 된 신체로 집장촌인 청량리 오팔팔로 들어가게 된다. 국가의 도시 정비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영자'는 사창굴에서 쫓겨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영자'의 죽음은 주체적 섹슈얼리티의 파괴를 보여주며 이는 산업화시대 이농으로 국가에 의해 내몰린 젊은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황석영의 「장사의 꿈」에 등장하는 '나'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젊은 청년이다. '나'의 타고난 건장한 체구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나'의 육체는 포르노 배우가 되고 이후 돈 많은 유부녀의 성적 대상물이 된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루는 속도를 보여주듯 소설 속 '나' 또한 도시에서 레슬링 선수라는 꿈을 돈이 없어 포기한 후 매춘 행위를 하며 빠르게 남창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돈'을 매개로 '성'을 이용하는 행위는 성애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2023S1A5B5A17088703)
** 이 논문은 2024년 7월 5일 제65회 한국현대소설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성신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화된 도시화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소설에서 자본의 대상이 된 성은 도구화되고 자본주의 계급에 의해 '나'의 육체는 성 기능 상실이라는 섹슈얼리티의 장애화로 나타난다.

주제어: 장애, 장애 담론, 섹슈얼리티, 산업화, 1970년대 소설, 황석영, 조선작

목차

1. 머리말
2. 국가 폭력으로 소멸된 불구의 몸
3. 자본주의 계급착취에 의한 불구화된 성
4. 맺음말

1. 머리말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된 시기였다. 이 시기는 농경 중심 사회에서 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의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변화한 시기이기도 하다. 급작스러운 사회 구조의 변화는 주변부에 놓인 저학력 저소득층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이동하지만 빠르게 변화한 산업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정착한 도시라는 공간에서 젊은 청년의 가장은 넘을 수 없는 현실의 장벽 앞에 놓이게 된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이념 안에서 이뤄지고 성장한다. 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발주의는 물질 만능주의를 양산하며 이러한 산업 이데올로기는 비인간화되어 나타난다. 즉 이 시기 젊은 청년의 몸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동원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해 동원된 청년층의 노동력은 국가에 의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

다. 자본주의라는 사회 체제 안에서 많은 돈을 벌어 성공을 위해 도시로 이주했지만 불합리한 사회 구조로 이들의 신체는 기계의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 시기 한국 문학에서 주요 소설적 배경으로 등장한다. 197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진행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도시의 빈민층을 양산하고 인간의 몸은 기계로 환원되며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국가 발전주의라는 명목 하에 정당한 임금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난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밖에 없는 도시 노동자 계급이 이 시기 소설 문학의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자본주의 산업화는 인간의 육체 노동력만 착취하지 않는다. 이 시기 성행한 성매매는 인간의 성, 특히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물질로 환원하여 자본으로 거래하는 성매매가 이뤄진다. '성'이라는 육체의 한 부분 또한 젊은이의 신체를 필요로 하며 여기서 또다시 청년층의 몸에 대한 착취가 이뤄진다. 이러한 몸의 착취는 섹슈얼리티의 장애화로 나타난다.

본고는 1970년대 산업화시대 소설 문학을 대표하는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와 황석영의 「장사의 꿈」을 중심으로 하여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장애화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1970년대는 청년의 젊은 신체가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발전주의로 인해 착취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력뿐 아니라 성의 자본화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성의 자본화로 인해 훼손된 신체는 장애로 나타나거나 이러한 신체로 매춘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기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심지어 훼손된 신체는 국가 폭력에 의해 죽음으로까지 이어진다.

푸코는 '성'을 권력의 매개물로 보았다.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과 출산, 결혼 등 사회 제반을 구성하기 위해 '성'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성은 쾌락을 동반하는데 여기서 성과 쾌락에 대한 권력의 관계가 공고해진다고 푸코는 이야기한다. 쾌락을 동

반하는 성은 매춘과 포르노그라피에 의해 경제적 이익과 동시에 쾌락을 가져오며 이러한 쾌락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이 증대한다고 푸코는 설명한다. 쾌락과 권력은 복잡하고 확실한 자극과 선동의 매커니즘에 따라 서로 얽힌다[1]고 본 것이다. 성을 하나의 권력으로 보았을 때 성을 사는 자와 파는 자의 사이에는 위계가 존재한다. 돈이 필요한 계층에서는 자신의 성을 매개로 경제적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 권력은 생계를 위해 행한 매춘에서 억압과 수탈을 가져온다. 성의 억압과 수탈의 행위는 한 인간의 정신과도 같은 정체성을 훼손한다. 푸코는 부르주아 사회가 육체와 성에 작용하게 되면서 권력의 유형[2]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국가의 산업화는 자본을 매개로 한 자유 경제체제이다. 이러한 산업 사회에서 '성'을 매개로 한 매매춘은 성을 살 수 있는 계층과 성을 제공하는 계층으로 분류된다. 시장 경제에 의해 성 산업은 인간의 성을 도구적 목적으로 이용한다. 도구화된 성은 착취로 이어지고 몸은 수탈된다.

정하늬[3]는 「영자의 전성시대」가 '호스티스 문학'이자 '대중소설'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소설은 1970년대 청년문화의 주체인 청년을 주인공으로 하여 청년 중에서도 소외된 도시 하층 청년에 주목한 작품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1970년대 산업화 사회가 이들 도시 하층 청년에게 가한 국가 폭력을 영자의 '의수'를 통해 은폐하려 시도했으나 그러한 은폐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 소설은 역설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은주[4]는 시선과 응시를 중심으로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은폐되고 가리워진 영역에 대한 응시의 현전에 대해 분석하였다. 작품 속 주인공인 영자의 성 노동은 사회에 의해 강요된 죽음 정치적 노동의 한 형태이며

1)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성의역사1』, 나남, 2017, 60면.
2) 위의 책, 58면.
3) 정하늬, 「'감춤과 드러냄', 소외된 청년들의 '전성(戰聲) 시대'」, 『춘원연구학보』, 춘원연구학회, 2020.
4) 정은주,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현전 양상」, 『청람어문교육』, 청람어문교육학회, 2018.

이는 개발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영[5]은 김호선 감독의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와 조선작의 소설 「영자의 전성시대」를 대상으로 하여 1970년대 청년문화의 복화술에 관해 고찰하였다. 각각의 작품들이 드러내는 모순적인 현실 인식을 분석하면서 당시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말하는 '복화술'적인 서술 전략을 사용했다고 분석하였다.

오태호[6]는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주체들의 '성적 욕망'의 모습을 분석하면서 「장사의 꿈」은 자본의 논리가 강요하는 물신화된 성적 욕망을 거부하고 자유의지를 지닌 채 자본이 매개되지 않는 본능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작품이라고 하였다. 정은주[7]는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와 황석영의 「장사의 꿈」을 중심으로 하여 1970년대 당시 은폐되고 가리워진 영역에 대한 응시에 관해 분석하였다. 황석영의 「장사의 꿈」에서는 남성의 성노동자를 통해 폭력적인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전복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며 자연을 향한 탈주의 욕망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본고에서 살펴볼 두 편의 소설은 공통적으로 '매매춘'이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 매춘을 하는 대상은 여성으로 국한되지 않고 여성과 남성이 모두 매춘의 대상으로 나온다. 이들 등장인물은 작품 속에서 각각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청년 세대다. 이들은 딱히 배운 게 없고 기술도 없으며 오직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것이다. 본고는 두 작품을 통해 1970년대 사회가 인간의 몸을 기계화 하는 동시에 성의 자본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장애화가 되어 가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5) 이민영, 「"영자의 전성시대", 1970년대와 '청년문화'의 복화술」,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2019.

6) 오태호,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성욕 주체'의 양상 연구」,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2006.

7) 정은주, 앞의 논문.

2. 국가 폭력으로 소멸된 불구의 몸

조선작의 단편 소설 「영자의 전성시대」는 소설로 발표된 이후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영화 또한 흥행에 성공하면서 소설 「영자의 전성시대」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소설로 자리한다. 이 소설은 서술자인 '나'가 작품 속 주인공인 영자의 삶을 관찰하면서 서사가 전개 된다.

주지하듯이 소설 「영자의 전성시대」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1970년대 산업 사회가 청년층 특히 하층 노동자에게 가한 국가의 폭력 양상에 관해 연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나'나 '영자'는 젊은 세대이며 고향을 떠나왔다는 점,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전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비단 육체노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육체노동에 더해서 성 노동까지 사회에 의해 착취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서술자인 '나'는 월남파병을 다녀온 제대군인이다. 당시 한국 사회는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쟁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했다. 1975년 베트남전쟁이 종전되기까지 총 34만 명의 장병이 참전했으며 이 중 5천여 명이 전사했다. 서술자인 '나'의 신체는 국가에 의해 전쟁에 동원되었고 귀국 후 일자리를 찾아보려 하지만 베트남전쟁에서 무공훈장까지 받은 '나'를 채용하려는 곳은 없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나'는 하는 수 없이 중대장이 운영하는 공중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을 하며 근근이 생활해 나간다.

> 군대에서 돌아온 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나는 진짜로 고군분투했었다. 그러나 결국 낙착된 것은 목욕탕의 '때 미는 사람'이었다. 사실 내가 군대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없었다. 월남에서 실제로 나는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화염방사기로 토굴 속에 숨어 있는 일곱 명의 베트콩을 불태워 죽이고 이름 있는 무공훈장을 획득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훈장이 나에게 취직자리를 약속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훈장을 받고 의기양양해졌을 때 나는 군대에 말뚝을 콱 박아버릴까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는 내 소싯적부터의 꿈을 그렇게 쉽사리는 버릴 수가 없었다. 어렷을 때부터 나는 어느 철공장에 빌붙어 견습용접공으로 밥을 얻어먹었지만, 내 꿈이란 무교동의 한 화려한 술집에서 보타이를 매고 일하는 것이라든지 명동의 한 소문난 양복점에서 재단사로 일해보는 것 따위의 그럴듯한 것이었다. 군대에서 돌아온 뒤 사실 나는 그런 곳에 일자리를 찾았었다. 그러나 웨이터 자리를 위해서는 내게 보증금이 없었고, 양복점의 '시다'로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버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을 불명예스럽게도 공동목욕탕의 때 미는 녀석으로 낙착시키지 않을 수 없었는데, 따지고 본다면 실상 이 일자리는 실속은 있는 일이었다.[8]

세신사로 취직한 '나'는 군대에 가기 전에 자주 들러 성매매를 했던 창숙이를 찾아 나선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 창숙이에게 외상을 지곤 했던 나는 또다시 창숙이를 만나 자신의 욕정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청량리 오팔팔로 창숙이를 찾아 나선 나는 뜻밖에도 입대하기 전 철공장서 용접공으로 일할 때 주인집의 식모였던 영자를 만나게 된다. 과거 식모였던 영자가 어떻게 청량리 오팔팔로 오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다시 만나게 된 영자는 한쪽 팔이 없어진 채 청량리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소설 속 '영자'의 삶은 서술자인 '나'의 시선에서 그려지고 묘사된다. '나'는 영자를 관찰하고 묘사하면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을 당시를 떠올린다. '나'의 시선은 과거는 베트남전쟁을 현재는 '영자'의 삶을 관찰하고 서술한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베트남전쟁의 경험은 무색하게도 제대 후 줄곧 청량리 오팔팔을 드나드는 성매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처음 창숙이를 찾아 나설 때도 "걸핏하면 다리 사이에서 그놈이 천막을 치

8)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 『20세기 한국소설』 29, 창비, 2007, 261-262면. 이하 같은 책 인용 시 각주는 생략하고 인용 페이지만 표기하기로 한다.

고 일어서는 바람"(263면)에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려 청량리로 간 것이었다.

캐슬린 베리는 성애화된 사회 속에서 여성은 섹스를 위한 몸뚱이일 뿐이라고 말한다. 성애화된 사회에서 여성은 섹스화된 몸[9]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무엇이 우리 사회를 성애화된 사회로 만들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품 속 '영자'는 처음부터 매춘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도시로 이주하여 식모로 취직을 한 것이다. 농촌에서 가난한 삶을 산 '영자'라는 인물과 이 인물이 놓인 1970년대 도시라는 공간은 가난한 젊은 여성이 주변부에 머물며 배회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영자'라는 젊은 여성의 신체를 유린하고 수탈하는 주인집 계층의 삶에 의해 짓밟혀 가는 공간으로 도시가 형상화된다.

이 소설에서는 여성의 몸이 산업화된 도시 공간 속에서 강간당하고 착취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자'가 생계를 위해 택한 도시 노동자의 삶은 당시 사회가 가난한 농촌 출신의 여성을 유린하면서 성애화된 도시 공간 속으로 끌어내려 훼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영자가 놓인 도시라는 공간은 주인집 부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형성한 성애화된 공간에서 영자의 삶이 파괴되고 성 주체성이 유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삶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닌 가난으로 인해 착취되고 훼손되는 성애화된 도시 공간으로 한정되어 그려진다고 하겠다. 즉 자본 계급의 바깥에 놓인 영자의 몸은 도시 하층민이 처한 삶의 모습이며 자본가 계급에 의해 성애화된 공간 속에서 가난한 농촌 출신의 젊은 여성의 성 주체성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울로 식모살이 온 것은 오로지 배불리 먹어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9) 캐슬린 배리, 정금나 · 김은정 옮김,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18, 41면.

> 그러나 식모살이만큼 견디기 어려운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부엌일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밤을 견디는 일이라고 풀이했다. (중략) "아, 식모살이라면 지긋지긋했어. 식모를 뭐 제 집 요강단지로 아는지, 이놈도 올라타고 저놈도 올라타고 글쎄 그러려 들더라니까요. 하룻밤은 주인 놈이 덤벼들면 다음날은 꼭지에 피도 안 마른 아들녀석이 지랄발광이고…… 내 미쳐 죽지 미쳐 죽어……" 식모살이를 네 군데나 옮겨 다니며 살았지만 모두가 그 모양이었노라고 말했다. (중략) 다 팔자소관이겠지만, 기왕 이렇게 알몸뚱이로 벌어먹어야 할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곧바로 이리로 찾아왔지 미쳤다고 여차장은 뛰어들었느냐고 아주 탄식 어린 어조로 말했다. 여차장을 하다가 만원버스에서 떨어져 마침 달려든 삼륜차 앞바퀴에 팔 한 짝을 바쳤노라고, 이제는 신경질도 안 부리고 줄줄 잘도 고백했다. (「영자의 전성시대」, 282-283면.)

이처럼 이 소설에서 그려진 1970년대는 성애화된 사회로 그려진다. '영자'가 이농 후 처음 시작한 식모살이는 육체노동으로 인해 식모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주인집 남자와 그의 아들에게 몸을 유린당해야 하는 밤을 견디는 일이 힘들다고 토로한다. 성애화된 사회는 불평등을 성별화[10]하면서 억압을 생산해 낸다.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영자'의 삶 또한 줄곧 강간과 성매매로 자신의 성을 억압당한 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영자'는 원치 않았지만 식모라는 입장에서 자신과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주인집 부자)에게 성을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 소설은 처음 시작부터 서술자인 '나'의 성적 욕망에서 시작하여 청량리 오팔팔에서 영자를 만나게 된 이야기로 서술된다. 베트남전쟁에서도 '나'는 현지 여성과 잠자리를 가진다. "월남에서는 나도 기분파적으로 국제창녀들과 놀아본 경험"(264면)이 있다고 하면서 월남에서

10) 위의 책, 같은 면. 캐슬린 배리는 남성 권력의 사회적인 실제로서 섹스를 공식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여성을 공식적인 실제로서 성애화한다고 보았다. 여성을 섹스화된 몸으로 가부장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환원시킨 것이 매매춘이라고 보았다.

의 성매수 경험이 “창숙이 년의 그것과 비긴다면 비싸기만 했지 진짜 별 볼일 없었던 것이다.”(264면)라고 하면서 한국의 성매수 경험과 비교한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 가난한 하층민을 둘러싼 1970년대 도시 공간은 성애화된 사회로 그려진다. 서술자 ‘나’는 국내외 모두 창녀와 놀아본 일을 떠올리며 귀국 후에도 자신의 욕망을 달래려 청량리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매매춘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인 성 매수자 = 남성, 성매매자 = 여성이라는 등가가 성립된다. 이 소설의 중심인물인 ‘영자’ 외에도 ‘창숙’이라는 인물과 ‘영자’의 고향 동기인 ‘춘자언니’까지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은 모두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이다.

또한 이 소설에서 ‘영자’가 최초로 식모 일을 그만두고 청량리까지 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주인집 부자의 강간이 가장 큰 이유였다. 소설에서 서술된 내용만 봤을 때 ‘영자’의 처음 성 경험은 강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인집 부자는 ‘영자’와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대상이다. 이들은 ‘영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기거하게 할 수 있는 위치이며 반대로 쫓아낼 수도 있는 위치에 자리한 인물이다. 시골에서 올라온 ‘영자’는 식모 일 외에도 밤마다 성적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유린당해야 하는 성 노예로까지 전락한다. 이농은 여성들과 소녀들을 사회적으로 이탈시키며 ‘영자’와 같은 조건에 있는 여성들은 성적인 착취에 쉽게 노출[11]된다.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서 ‘영자’처럼 주변화되는 여성들은 매매춘으로 불법 거래되는 것이다. 시골의 가난을 박차고 나온 여성들이 처한 취약한 조건은 매춘으로 매매 되며 그와 동시에 그 나라에서 매춘은 산업화[12] 되어 간다고 캐슬린 배리는 이야기 한다.

주인집에서 성 노예로까지 삶을 살아야 했던 영자는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식모 일을 그만두고 버스 차장으로 일하게 된다. 그러다 만원 버스에서 떨어져 그만 한쪽 팔을 잃게 되는 사고를 당한다. 이로써 영자는 신

11) 위의 책, 75면.
12) 위의 책, 76면.

체적 장애를 갖게 되었고 온전하지 못한 신체로는 일을 할 수도 없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도 살아가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처음 영자가 식모로 일하면서 주인집에서 강간당했을 때 영자는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버스 차장으로 근무하며 한쪽 팔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무런 보상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사회 주변부로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영자의 신체는 영자로 하여금 스스로 청량리 오팔팔로 걸어가게 하는 현실을 만든다.

이러한 '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식모 일을 하면서부터 생을 거두게 되는 날까지 '영자'는 강간과 직업여성이라는 성애화된 사회 속에 놓이게 된다. 국가의 도시화와 산업화 정책으로 이농을 하게 된 당시의 상당수 '영자'는 아무런 교육과 사회적 장치 없이 국가로부터 농촌에서 도시로 내몰리게 되었다. '영자'가 직면한 산업화된 도시 공간은 '식모' 일을 시작으로 성애화된 공간 속에서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한쪽 팔을 잃은 장애를 갖게 된다. '영자'는 장애를 가진 몸으로 계속해서 성노동자의 삶을 이어간다.

그래서 '나'는 '영자'에게 '의수'를 만들어 줌으로써 성 매수자를 속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한다. 식모로 시작한 '영자'의 삶은 강간으로 주체적인 섹슈얼리티가 파괴된다. 이후 영자는 신체적 장애를 겪게 되면서 매춘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이마저도 죽음이라는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된다. 이러한 '영자'의 죽음은 주체적 섹슈얼리티의 파괴를 보여주며 이는 이농으로 국가에 의해 내몰린 젊은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작품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작가는 당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결국엔 성애화된 도시로서의 민낯을 보여줌으로써 당대 젊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국가 폭력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비판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자본주의 계급착취에 의한 불구화된 성

황석영의 「장사의 꿈」은 일자리를 찾으러 농촌에서 도시로 온 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서술자인 '나'는 자신이 낙원탕의 세신사가 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소설은 시작된다. 이 작품 또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였으며 이 소설에서도 성매매가 중심 소재로 다뤄진다.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사의 꿈」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신화된 성적 욕망이 주인공 남성에 의해 어떻게 인간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앞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사의 꿈」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장애화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장사의 꿈」에 등장하는 서술자인 '나'는 「영자의 전성시대」에 등장하는 서술자인 '나'처럼 직업이 세신사다. 두 작품의 서술자는 모두 남성이며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젊은 청년 세대다. 또한 두 소설 모두 성애화된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사의 꿈」에 등장하는 '나'는 집안 대대로 체격이 우람하고 힘이 좋은 장사의 체구를 갖고 태어났다. 이러한 유전적 체구는 동네에서 힘쓰는 일에 항상 적임자였고 마을에서 개최하는 씨름대회에 나가면 매번 우승을 거머쥐게 했다. 그러다 '나'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여의고 일자리를 찾아서 도회지로 오게 된다. 평소 고향에서도 장사였기에 도시에 올라오자마자 체육관을 찾았지만 돈을 내고 레슬링을 배워야 한다기에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낙원탕의 세신사로 일하게 된다.

> 내가 무일푼으로 도회지에 왔을 때, 제일 처음에 물어 물어서 찾아간 곳이 체육관이었어. (중략) 어찌어찌 낙원탕으로 굴러들어와 이 추운 겨울을 다행히 벗구 살지. 그런데 때밀이짓도 아까 말했듯이 기계처럼 미칠 노릇이구만. (중략) 잔치의 함성과 자랑스러운 승리와 늠름한 황소를 끌고 가던 지난날의 영광은 모두 욕탕의 비누거품 속에 사라진 것 같았

지. 아니 어쩌면 읍내를 떠나던 날, 그런 것들은 안개 속에 없어졌을지두 몰라. (중략)

"체격이 훌륭하군." (중략)

"직업 한번 바꿔볼 생각 없나?"

"……?"

"그런 몸 가지고 탕에서 썩기는 좀 안됐는걸."[13]

작품 속 '나'가 레슬링을 포기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소설의 제목처럼 '나'는 우람하고 강한 체구를 타고 태어났다. 이러한 건장한 체구에 걸맞게 레슬링 선수로서의 꿈을 꿔 보지만 시골에서 무일푼으로 상경한 '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꿈을 포기하고 만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선택한 직업이 목욕탕의 때밀이였다. 인간은 누구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고 나아간다. 소설 속 '나' 또한 성공을 향해 도시로 이주했지만 '나'가 처한 현실은 꿈을 포기하고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선택지밖에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과거 고향의 씨름 판에서 우승을 하여 황소를 끌고 가던 지난 날의 영광은 현재 욕탕 속 비누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현재의 '나'는 때 미는 기계가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런 '나'에게 어느 날 영화감독이라는 손님이 찾아 와 배우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한다. '나'는 그에게 받은 명함을 가지고 그가 일한다는 사무실에 찾아가고 이후 '나'는 포르노 배우의 삶을 살게 된다. '나'는 함께 포르노를 찍는 여배우인 '애자'와 사랑에 빠지고 급기야 '애자'는 임신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은 포르노 찍는 일을 그만두고 일반 사람들처럼 살림을 차리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이후 '애자'는 유산을 하고 결국 두 사람은 결별하고 만다. 이후 '나'는 버스에서 물건을 파는 등 가난에서 벗

13) 황석영, 「장사의 꿈」, 『몰개월의 새』, 창비, 2003, 15-16면. 이하 같은 책 인용 시 각주는 생략하고 인용 페이지만 표기하기로 한다.

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러다 어느 날 신문에 실린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에서 '나'는 포르노 배우에서 더 나아가 남창이 되고 만다. 부유층의 유부녀와 몰래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일을 계속한 '나'는 급기야 성 불능의 장애를 갖게 된다.

> 어떤 때엔 첫 번의 약속으로 끝나기도 했고, 또 어떤 때에는 여자 쪽의 청에 따라서 세 번 이상을 만났고, 오마담 쪽에서 새로 지정해주는 상대와 겹치기로 만나기도 했었어. 벌이가 좋은 때엔 일주일 내내, 아니 하루에 시간 간격을 두고 두세 차례씩 뛰어다녔지. 공원도 갔고, 교외선도 탔고, 지정한 호텔의 예약된 방에도 갔으며, 침대차도 탔어.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누가 누군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었지. (중략)
>
> 그런데,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 전혀 맥이 없고 만사가 귀찮아지면서 내 그것이 말을 듣지 않게 되었어. 이 녀석은 묵묵히 사색에만 잠겨 있게 되었단 말이야. (중략) 나는 너무 피로했던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내 몸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었던 모양이야.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가까이 가기가 싫었지. 왜냐하면 그들은 내 일의 대상이었고, 책무였기 때문이었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 매일 하숙집에서 낮에도 두꺼운 담요를 치고 잠만 잤어. 언제가 낮이고 밤인지 분간할 수도 없었지. 나는 치욕감 때문에 상실한 기능을 되돌이켜보고 싶은 원망도 일어나지 않았지. 오히려 그런 증세를 반가이 맞이해서 안주하고 있었다고나 할 수 있을 거야. 마음도, 이제는 몸마저 잃어버린 것이지. (「장사의 꿈」, 27-28면.)

물신화된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성 또한 자본으로 환원되는 모습을 「장사의 꿈」에서는 포르노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감독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나'의 우람한 젊은 체격이 필요했다. 과거 시골에서 '나'의 건장한 체격은 농사일과 뱃일 그리고 씨름이라는 전통

과 관련되었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나'의 몸은 육체의 쓰임이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건강한 육체로 성 노동을 원하는 것이다. 육체에서 나오는 건장한 '힘'의 원리는 산업화가 진행된 도시에서는 '나'의 건장한 육체라는 껍데기만 원할 뿐 그 안에 내재된 '나'의 진정성에는 무관심하다. 오로지 육안으로만 확인되는 젊음과 건장함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겉으로의 육체는 성매매로 이어지며 여기서의 성은 물질처럼 자본화되어 매매된다.

또한 「장사의 꿈」에서는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성장처럼 작품 속 '나'가 도시에서의 생계를 위해 손쉽게 매매춘에 빠져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나'는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매춘 행위에 대해 일말의 죄의식이나 인간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지 않는다. 오로지 생계를 위해 손쉽게 자신의 육체(성)를 이용할 뿐이다. 돈을 매개로 유부녀와 잠자리를 하는 행위는 떳떳하지 못하다. 그렇기에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상대방의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않고 중개자를 통해 성행위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등장인물의 행위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 성을 파는 '나'와 성을 사는 가정이 있는 여성,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해 주는 중개인 등 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모르며 타인에 대한 존중의 자세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인물들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작품 속 등장인물은 당시 사회가 하층 계급인 '나'의 몸을 유린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너무나 손쉽게 '돈'을 매개로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보여준다. 이는 빠르게 진행된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인간의 성 주체성 또한 '돈'이라는 자본으로 환원하여 유린하고 착취하는 사회의 한 단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사회가 '나'로 상징되는 청년의 몸을 유린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비판의식과 죄의식 없이 너무나 손쉽게 '돈'을 매개로 '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상화된 사회는 성애화된 도시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결국에 ‘나’는 그곳이 서지 않게 된다. 낙원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던 ‘나’의 몸이 기계처럼 때를 밀었듯이 매춘을 하게 된 ‘나’의 성 또한 기계화되고 급기야 더는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기계처럼 쓸모없어지게 된다. 결국 ‘나’는 성 기능의 상실로 방안에만 갇혀 지내며,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가까이 가기 싫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여성은 본인이 기계처럼 일을 하게 된 대상이자 돈을 벌어야 하는 책무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사의 꿈」에서는 당시 1970년대 사회가 인간의 육체뿐 아니라 성적 욕망까지도 자본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성을 자본화하는 주체는 ‘나’의 성을 사는 자본주의 계급이며 작품 속 ‘나’는 이러한 자본주의 계급에 의해 매춘 행위를 일삼는 하위계급의 농촌 출신 청년이다. 성을 제공받는 자본주의 계급은 아무런 폐혜를 입지 않지만 성을 제공하는 하위 계층의 ‘나’는 성불구자가 되고 만다. 결국 이 소설에서 자본의 대상이 된 성은 도구화되고 자본주의 계급에 의해 ‘나’의 육체는 성 기능 상실이라는 섹슈얼리티의 장애화가 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는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장애화를 조선작의 소설 「영자의 전성시대」와 황석영의 소설 「장사의 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두 작품에서는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1970년대 사회를 소설의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시기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다. 먼저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영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홀로 상경한다. 한 가정집에 식모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주인집 양반과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다. ‘영자’가 주인집에서 당한 강간은 주인집 부자와 ‘영자’ 사이의 위계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젊은 여성의 몸은 권력

의 힘에 의해 유린당하고 겁탈당한다. 이렇게 자신의 성 주체성을 박탈당한 '영자'는 버스 차장으로 취직하지만 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된다. 불구가 된 '영자'의 신체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집장촌인 청량리 오팔팔로 들어가게 된다. 이곳에서 장애의 몸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 보지만 결국 집장촌 주인집 여자에게 돈을 빼앗기고 만다. 그리고 국가의 도시 정비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영자'는 사창굴에서 쫓겨나 결국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영자'의 죽음은 주체적 섹슈얼리티의 파괴를 보여주며 이는 산업화 시대 이농으로 국가에 의해 내몰린 젊은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황석영의 「장사의 꿈」에 등장하는 '나'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젊은 청년이다. '나'의 타고난 건장한 체구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나'의 육체는 포르노 배우가 되고 이후 돈 많은 유부녀의 성적 대상물이 된다. 스스로 남창이 된 '나'와 성을 매수하는 자본가 계급의 유부녀,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 주는 중개인은 성을 도구화하고 자본화하는 데에 일말의 죄의식과 인간에 대한 윤리 의식을 갖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루는 속도를 보여주듯 소설 속 '나' 또한 도시에서 레슬링 선수라는 꿈을 돈이 없어 포기한 후 매춘 행위를 하며 빠르게 남창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사회가 '나'로 상징되는 청년의 몸을 유린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비판의식과 죄의식 없이 손쉽게 성을 도구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돈'을 매개로 '성'을 이용하는 행위는 성애화된 도시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자본의 대상이 된 성은 도구화되고 자본주의 계급에 의해 '나'의 육체는 성 기능 상실이라는 섹슈얼리티의 장애화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 『20세기 한국소설』 29, 창비, 2007.

황석영, 「장사의 꿈」, 『몰개월의 새』, 창비, 2003.

2. 논문 및 단행본

김윤정, 「여성 SF 문학에 나타난 장애와 포스트휴머니즘의 불구성(不具性)」, 『이화어문논집』, 이화어문학회, 2022, 83-117면.

나소정,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장애와 질병의 통시적 고찰」, 『문화와융합』,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325-333면.

오태호,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성욕 주체'의 양상 연구」,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2006, 291-322면.

이민영, 「"영자의 전성시대", 1970년대와 '청년문화'의 복화술」,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2019, 251-288면.

정은주,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현전 양상」, 『청람어문교육』, 청람어문교육학회, 2018, 231-258면.

정하늬, 「'감춤과 드러냄', 소외된 청년들의 '전성(戰聲) 시대'」, 『춘원연구학보』, 춘원연구학회, 2020, 103-137면.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1』, 나남, 2017.

캐슬린 배리, 정금나 · 김은정 옮김,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18.

<Abstract>

The Medicalization of Sexuality in 1970s Novels

Kim, Ja Young

In this paper, the medicalization of sexuality in 1970s novels was examined through Jo Seon-jak's novel,「Yeong-ja's Prime Years」, and Hwang Seok-yeong's novel,「The Dream of Business」. These two works are se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1970s, a time whe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were rapidly progressing in South Korea. In Jo Seon-jak's「Yeong-ja's Prime Years」, 'Yeong-ja' moves to the city alone to support her family's livelihood. The yong woman's body is trampled and raped by the power of authority. 'Yeong-ja', having her sexual identity stripped away, eventually goes into Ohpalpal in Cheongnyangni, a red-light district, with a disabled body. Under the name of the state's urban redevelopment project, 'Yeong-ja' is kicked out of the whorehouse and meets a mysterious death. This death of 'Yeong-ja' shows the destruction of subjective sexuality, which can be seen as an expose of the reality faced by young female workers who were driven to the city by rural depopulation during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I' in Hwang Seok-yeong's「The Dream of Business」is a young man who has migrated to the city in search of a job. The naturally strong physique of 'I' loses its value as labor in the urban space. 'I' becomes a porn actor, and the body of 'I' later becomes a sexual object for a wealthy married woman. As the Korean society shows the rapid pace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 in the novel shows the rapid decline

into male prostitution after giving up the dream of becoming a wrestler in the city due to a lack of money. The act of using ‘sex’ as a commodity through ‘money’ shows a facet of sexualized urbanization. In this novel, sex, which has become the object of capital, is commodified, and the body of ‘I’ is portrayed as a sexual dysfunction, representing the impairment of sexuality by the capitalist class.

key words: medicalization, the discourse on medicalization, sexuality, industrialization, 1970s novels, Hwang Seok-yeong, Jo Seon-jak

투 고 일 : 2024년 11월 21일 심 사 일 : 2024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 2024년 12월 21일 수정마감일 : 2024년 12월 27일